

GANGJIN 

# *Web Contents*



# 목차

목차	2
포토뉴스	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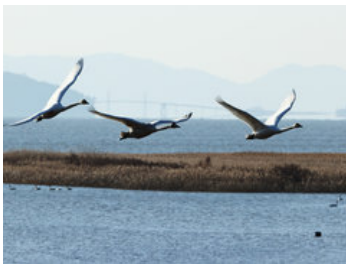
- 포토갤러리입니다.
- 강진의 다양한 군정활동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 강진의 군정 이모저모를 직접 열람하세요~!



2020-12-29  
12.22. 검은 겹고숙은 붉은 귀족토마토 수확



2020-12-29  
12.21. 전라병영성의 일몰



**12. 16. 추위가 반가운 고니**

2020-12-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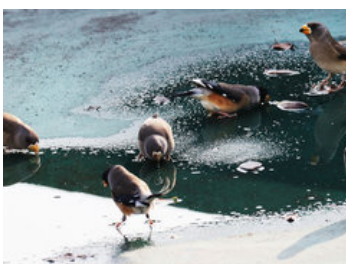
한파가 절정을 이룬 16일 전남 강진군 강진을 생태자원의 보고 강진만생태공원이 시방역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월동을 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 201-2호인 큰고니들이 혹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위를 즐기고 있다.



**12. 7. 메주 시집가는 날**

2020-12-10

스물한 번째 절기 대설(大雪)인 지난 7일 전통된장마을인 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 주민들이 발효실에서 발효를 마친 메주를 손질해 겨우내 지낼 자리로 옮기고 있다. 마을 어르신들은 이 작업을 '메주 시집 보낸다'고 하는데 삶은 콩이 메주로 만들어져 발효를 마치면 겨울 동안 매달아 놓을 곳으로 이사간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. 겨울을 보낸 메주는 ..



**12. 1. 큰밀화부리 강진서 월동 중**

2020-12-10

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져 제법 추운 날씨를 보인 지난 1일 전남 강진군 강진을 강진군청 주변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나그네 새 '큰밀화부리' 무리가 몽툰 부리를 옆으로 누워 물을 마시고 있다. 밀랍을 바른듯한 부리를 가졌다하여 붙여진 이름 큰밀화부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취약종으로 분류하여 보호받는 종인데 월동을 위해 강진에 날아들었다.



**11. 27. 전통어업 가래치기 장관**

2020-12-10

초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친 지난 28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 요동제에서 전통어업유산인 '가래치기'행사에 참여한 농부들이 불어닥친 한파 속에서 짜릿한 손맛을 보고 있다. 원통형 대나무 바구니인 '가래'로 물고기를 가 뒤 잡는 방법이라 붙여진 이름 가래치기는 강진군 병영일대의 전통 어업으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산이다. 해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..





### 11. 20. 소설(小雪)에 만드는 메주

2020-12-10

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선다는 절기 소설(小雪)인 22일 약한 비가 이어진 날씨 속에 전통된장마을로 잘 알려진 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에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드는 마을주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. 겨우내 숙성된 메주는 내년 정월 보름 무렵부터 전통 옹기에서 장(醬)과 된장으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.



### 11. 17. 떠나는 가을

2020-12-09

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예보된 가운데 지난 17일 모란 시인 영랑 김윤식 생가(전남 강진군 강진읍, 국가 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252호) 사랑채 앞 은행나무 주변이 노랗게 물들어 저물어가는 가을 정취를 보여주고 있다.



### 11. 13. 새 옷 입는 영랑생가

2020-11-25

아침 추위가 한풀 꺾인 지난 15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동마을 모란 시인 영랑 김윤식 생가(국가 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252호) 사랑채 지붕에 벗짚이영을 잇고 있다.



### 11. 10. 추위가 반가운 고니

2020-11-19

제법 추운 날씨를 보인 지난 10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만(灣)에 월동을 위해 날아든 큰고니(천연기념물 제201-2호)가 요란한 날개 짓을 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.

제목  검색

RESERVED.

GANGJIN

***Web Contents***

